

조선중기 양아록(養兒錄)을 통해 본 아동 인식

The Conception of Children in the Middle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as Portrayed in a Personal Diary.

백 혜 리*
Baeck, Hae Rhee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conception of children as portrayed in a personal diary written the middle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The Yangalok is a daily record in which Moonkun Lee wrote how he brought up his grandson. The Yangalok is an important historical document, showing how people brought up their children and indicating their conception of childhood. Research questions included the definition of the period of childhood and a description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It was found that childhood was completed by age sixteen, the importance of the child as family member hinged on his position as an heir,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was defined by Chin(親), including qualities of both love and discipline.

Key Words

아동기(childhood), 조선(chosun), 기록(diary)

I. 서론

양아록(養兒錄)은 16세기 조선 중시 사대부인 묵재(默齋) 이문건(李文健)(1494-1567)이 손자인 이수봉(李守封)을 양육하면서 시문형식으로 기록한 육아일기이다. 이러한 양육기는 시대를 막론하고 국내에서는 이제까지 발견된 바 없는 희귀본이며, 특히 저자인 이문건은 조선 중기 중종 때부터 명종에 이르기까지의 인물로, 승정원(承政

院) 좌부승지(左副承旨)를 지니기도 한 당시 사회의 사대부의 한 사람이다.

양아록은 이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 중기의 생활상과 가치관에 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명해볼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아동관 연구에서도 매우 가치있는 사료이다. 양아록이 지닌 사료로서의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화여대 강사

먼저 양아록은 조선 중기 이루어진 아동 양육에 대한 실증적인 사료이기 때문에 당시 아동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조명할 수 있게 해준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아동기, 아동관에 대한 연구(류점숙, 1989; 류안진, 1990; 신양재, 1994b; 신양재, 1995; 백혜리, 1997)는 조선시대에 사용된 아동용 교과서나 성인용 교훈서와 같은 문헌자료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문헌 분석을 통한 아동관의 연구는 당시 사회의 기초적인 이념을 통해 아동관을 살펴본다는 면에서 매우 가치로운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당시의 실생활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아동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아록은 개인의 육아일기라는 점에서 사료의 가치가 있다. 이제까지 전해진 많은 일기들 중에서 이와 같이 개인의 육아일기로 전해진 바는 전무후무한 상황이다¹⁾. 대부분의 일기들은 당시 사회의 큰 사건이나 국사와 관련된 기록을 담고 있는 반면, 양아록은 전혀 공식적일 것이 없는 한 개인의 사적인 육아일기이다. 따라서 당시 사회에서의 한 개인이 자손을 어떻게 양육하였는지에 관한 개인적인 생활사를 담고

있어서 이를 통해 일반인의 양육의 방법은 물론 당시 사람들이 지녔던 아동관을 조명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저자인 이문건이 조선시대 지도계층으로 유교적 인물이라는 점에 이 일기의 가치가 있다. 조광조의 문하생이며 유교적 인물이었던 사람이기도 하였던 저자가 여성의 일로 여겨졌던 아동의 양육에 직접 관여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는 매우 흥미로운 일일 뿐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아동의 양육에 대한 새로운 일면을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사료로서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양아록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행 연구로는 양아록의 의의에 대한 연구(이상주, 1997)와 출산·생육에 관한 연구(이복규, 1999) 등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아록의 기록을 통해 조선중기 사대부의 아동, 아동기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 대상인 양아록과 그 저자인 이문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후 양아록이 담고 있는 기록을 중심으로 당시 아동기에 대한 인식,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II. 연구문제 및 연구대상

1.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양아록을 통해 볼 때, 아동기는 언제로 인식되었으며, 아동기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보았는가?

1) 현재까지 전해진 개인일기로는 난중일기(亂中日記), 열하일기(熱河日記), 계축일기(癸丑日記) 등을 있으나 이들은 모두 정치적, 사회적인 역사적 사건이 있을 때, 쓰여진 일기로 아동양육이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기록은 없다. 또한 일반적인 생활사를 담고 있는 것으로는 남평 조씨(南平 曹氏)의 병자일기(丙子日記), 오희문(吳希文)의 쇠미록(瑣尾錄), 유희춘(柳希春)의 미암일기(眉巖日記)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들 역시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부분을 담고 있지는 않다.

연구문제 2. 양아록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사회에서의 부모-자녀 관계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3. 양아록을 통해 볼 때, 아동의 존재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양아록 이외에도 이문건의 개인 일기인 묵재일기(默齋日記)를 참고로 분석하였다. 원래 이문건은 시문집(詩文集)과 9권의 일기를 남기고 있으며, 양아록은 이중 개인 일기인 묵재일기에서 손자의 양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몇몇 날의 일기를 발췌하여 시의 형식으로 묶은 것이다. 따라서 양아록의 기록에 대해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 묵재일기에서 양아록에 제시된 기록 일의 전후 일기를 참조로 분석하였다. 또한 당시 사회에서의 양육방법과 아동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대한 조선시대 문헌 기록과 이를 연구주제로 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함께 분석하였다.

2. 연구 대상

양아록의 주인공인 이수봉(1551-1594)은 양아록에서 숙길(淑吉)이라는 초명(初名)으로 불리며 자는 경무(景茂), 일자(一字) 무경(茂卿) 등이다. 이수봉이라는 이름으로의 개명은 1564년 이루어졌으며, 1899년 간행된 기해보(己亥譜)에서는 이름이 원배(元配)로 기록되어 있어 사망한 1567년 이후 다시 개명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이상주, 1997). 이수봉은 그다지 큰 벼슬을 지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임진왜란 때에 윤우(尹佑), 조복(趙服)등과 함께 창의(創意)하고 격문(格文)을 만들고 하며 활동을 하였다고 하며, 이를 안조정에서 상을 주려고 하였으나 이를 사양하여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

양아록의 저자인 이문건은 중종 시대의 사립의

중심이었던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으로 이미 10여 세에 이미 글을 익혔으며 필법이 뛰어났다고 한다. 1513년에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여 벼슬을 시작하였지만 기묘사화(己卯士禍)와 관련되어 과거시험의 기회를 9년간 박탈당하기도 한다. 즉, 조광조가 기묘사화에 연류되어 화를 당하자, 겁이 나서 다른 사람들은 조문조차 하지 못할 때, 둘째형과 함께 예(禮)를 갖추어 조문하고 장례를 지냈는데, 이 일로 인하여 형은 문초를 받고 사망하였으며, 본인도 과거시험의 자격이 박탈되게 된다. 그러나 복권이 된 다음 해인 1528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 설서(設書), 사서(司書)를 거쳐 1545년 승정원(承政院) 좌부승지(左副承旨)가 된다. 그러나 또다시 큰형의 아들인 이휘(李輝)가 을미사화(乙未士禍)에 연류되어 죽음을 당하고 그 또한 이에 연좌되어 경상북도 성주(星州)로 유배되었다.

이 때, 가족들이 모두 성주로 이주하여 함께 지내던 때인 1551년, 그의 나이 58세 때에 손자인 이수봉이 태어난다. 이수봉이 태어날 당시, 이문건은 이미 두 형과 조카들의 죽음을 경험하였으며, 수봉이 7살 되던 해에 아들 온(溫)의 죽음을 경험했던 까닭에 하나뿐인 손자의 양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이문건은 손자의 성장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양아록의 서두에는 육아일기를 남긴 이유에 대하여

“아이 기르는 일은 반드시 기록할 일은 아니나 기록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없어서이다. 노년에 귀양살이하는 데 벗할 동료가 이미 적어졌고, 생계에 별 계책이 없어 생산에 일을 도모하지 못하는 처지였다...(중략)...아이가 만약 장성하여 이것을 보게 되면, 아마 문자 상에 나타난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리라”

고 적고 있다. 글에 의하면 스스로 양육기를 적음은 별로 가치로운 일은 아니나 “할 일이 없어서” 기록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양아록을 기록한 진정한 이유는 “손자가 장성한 이후 문자상에 나타난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상주, 1997). 이문건은 자신이 손자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며 얼마나 손자를 사랑하였는지를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손자를 가르치고, 그 결과로 손자가 성공하여 가문을 영화롭게 하고 이를 잘 계승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의도로 이 책을 저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도는 양아록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아록에는 손자에 대한 바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쇠퇴해 가는 가문 네가 지탱하여 수천 년까지 이어가게 해야 하리(1555. 12)”

“내가 진심으로 하나뿐인 손자에게 바라는 건 시종일관 학문을 완성하여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것(1560. 5. 18)”

“마침내 군자인 되어 훌륭하고 덕망 있는 가문을 이루게 되면(1556. 8)”

라고 하여 본인의 바람을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양아록은 본인의 바람을 손자에게 전하여 손자를 가르치려고 저술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자신의 교육을 위한 의도를 “할 일이 없어서”라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로 교묘히 감추고 있음은 당시 사회에서 양아록을 남자가 남기는 것에 대한 본인의 어색함을 적절히 합리화하려고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양아록은 전체 서두 1편, 39편의 양육관련 일

기와 축시 2편, 축원문 3편, 가족에 관한 기록을 담은 4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²⁾.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손자의 출생과 신체적 성장의 과정, 그리고 질병과 사고에 대한 내용 및 교육내용과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일기는 시의 형식만을 빌어 쓰기도 하고, 시 앞에는 산문으로 시의 내용과 관련된 사건을 묘사한 글을 함께 남기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는 산문으로 소상히 그날의 일이나, 손자에게 남기는 글 등을 적고 있는데 손자가 탄생한 날의 일기(1551. 1. 5)나, 손자에게 ‘술 마시는 것을 경계한 글(1564. 1. 2)’ 등이 그것이다.

일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손자의 성장과 관련된 일기는 전체 39편 중 15편이며, 손자의 병에 관한 기록은 14편, 손자의 교육과 관련된 일기는 9편,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것 1편 등이다. 이와 같이 전체 39편의 일기 중, 질병에 관한 기록이 반 정도를 차지하였다함은, 당시 사회에서 아동의 양육과정에서 아동의 질병과 사고가 가장 큰 관심사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산문에서는 본인의 가계에 대한 소개와 가족에 대해 소상히 적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문과 손자에 대한 3편의 축원시를 담고 있어서 손자에게 가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손자에 대한 할아버지의 바람, 그리고 할아버지가 양아록을 쓰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고자 하였음이 엿보인다.

양아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자인 이문건은 매우 다정하고 자애로운 가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손자인 숙길에게 한없이 자애롭고 좋은 할아버지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자애로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기록은 다른 어떤 경우에도 찾아보기 힘든 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 이와 같은 양아록의 구성에 대해 이상주(1996)는 전체 37제(題)41수(首)와 산문 4편이며, 이 중 성장과정에 관한 부분은 13제 16수이며 질병에 관련된 부분은 15제 16수, 그리고 교육에 관한 부분은 8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시의 구성형태보다는 일기에 기록된 내용이 더 중요하므로 전체 기록의 총수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문건이 당시 사회의 지도층이며 유교적 사고방식에 익숙했던 사대부의 한 사람이었다는 점은, 이 문건이 남긴 일기가 지닌 사료로서의 가치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하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 이루어진 조선시대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들(이계학, 1995; 이길표, 1994; 백혜리, 1999)에서는 결론 내렸던 “엄하고 권위적”이라고 한 유교적 아버지의 상이 실제 생활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³⁾.

양아록이 지니는 사료로서의 가치는 아동관

의 연구뿐 아니라 조선 중기의 사대부의 가족관계, 생활상, 점(占)과 같은 풍습관련, 그리고 당시의 사회제도사, 교육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문건이 남긴 기록에 따라 당시의 사대부들이 집복, 굿 등과 같은 우리의 토속 신앙을 숭배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유배되어 가는 사대부의 경우, 가족이 함께 이주하여 지낼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유배 간 사대부와 당시 지방 관리들과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기에 대한 인식

양아록을 통해 볼 때, 조선 중기에는 아동기를 16세까지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서두에는 손주의 탄생을 기뻐하며 지은 시가 나오는데, 그 시에서 “노년에 성동(成童)⁴⁾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리라”⁵⁾고 소원한다. 여기서 성동(成童)이란 예기(禮記)에 의하면 15세 정도의 소년을 의미한다. 또한 양아록의 기록이 16세까지만 기록한 것으로 보아도 아동이란 16세까지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성에 대해 양아록에서는 “혈기가 15세 전에는 안정되지 않아서 마치 풀이 처음 싹트고 꽃이 처음 몽우리가 서는 때(1564.1.2)”라고 하여 15세 경이 되어서 아동의 성장이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인식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16세까지로 정의 될 수 있는 아동기는 1-6·7세, 8-10세, 11-16세의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0세에서 6·7세에 이르는 시기에는 아동을 잘 보호하고 양육함에만 치중하였다. 양아록의 전체 39편 중, 6세 미만의 시기에 관한 기록이 24편에 이르며, 24편의 시는 대부분 숙길의 성장, 발달에 관한 기쁨과 대견함, 그리고 숙길의 병에 대한 염려와 탄식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즉, 아동의 교육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이 단순히 아동이 건강하고, 잘 자라기를 기원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담고 있을 뿐이다.

이 시기의 아동 특성에 대해 이문건은 “지금 아직 어린 나이로 뭘 보기만 해도 마음이 먼저 따라가니, 깨우쳐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꾸짖어도 위엄 보이기 어렵네.(1555. 7)”라고 하여 아직은 아동을 가르치기에 적절한 때가 되지 않았다고

3) 목재일기에서 보면, 이문건은 엄하고 권위를 강조하는 가장이 아니라, 며느리(이수봉의 어머니)의 병(중기나 감기)이나 고충 등을 자상히 살피고 손주와 손녀를 자상히 돌보고 있으며, 자주 처자를 보러 안채에 다니오는 자상한 가장의 이미지를 제공한다.

4) 양아록을 한글로 옮긴 이상주(1996)는 성동(成童)을 성인(成人)으로 번역하였으나 원문을 살펴보면 성동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5) 暮年思兒爾成童

인식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나이가 6·7세가 되면 가르침이 시작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먼저 손자인 숙길이가 6세가 되자 이문건은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 사실을 양아룩에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그는 글을 가르치게 된 이유에 대해 “손자의 지각이 날로 발달하여 시험삼아 글자를 쓰고 읽게 하니(1556. 9. 5)”라고 하여 손자가 지각이 발달하여 글을 가르치기 시작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아직은 온전히 글 가르치기를 시작할 시기는 아니어서 “시험삼아” 일찍 시작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시기의 목재일기를 살펴보면, 6세 이후에 이문건이 숙길에게 본격적으로 글을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 즉, 숙길의 나이가 6살이던 1556년 9월부터는 숙길에게 글을 가르쳤다는 일기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때때로(9, 11, 12, 27 등) 숙길을 글을 잘 배우려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함께 나온다. 이와 같은 숙길이 글을 잘 배우려 하지 않아 이문건이 매우 화를 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응당 상세하고 천천히 타일러줘야 할 것이니, 조금하게 옥박지른다고 무슨 이득이 있으랴?(1556. 9. 5)”고 하여 자세히, 그리고 친절하게 아동을 대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함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7세 때와 9세 때에는 숙길을 나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나무람의 이유에 대해 7세에는

“되바라진 손자는 반성하지 못하고 도량이 부족하여 분하게 여기며 반항을 하네. 7세면 점차 지혜가 성장할 나이기에(1557. 9. 4)”

라고 하여 꾸중의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7세 이후의 아동은 이제 지혜가 성장해야 할 시기이며 따라서 학업에 열중하기 시작해야 하는 시기라고 인식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9세에는 “손

자가 학업을 하지 않아 나무랐으나 또 주의 깊게 듣지 않고.....아이들과 어울려 동문 밖으로 나갔다(1559. 3.13)“고 하여 이제는 학업이 중요한 일과가 되어야 함에도 공부하지 않음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나이 10세 이후에는 “혈기가 거의 완성되고 정신과 식견이 성숙하여지는 시기(1560. 5. 6)”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명운이 안정되어 질병 재앙 횡액을 면할 것(1555. 12)”이라고 한다. 이는 아동이 충분히 성장하여 많은 질병과 사고에서부터 이제는 안전하다고 인정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견을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학업에 정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불행히도 숙길은 10세가 되어서도 학업에 정진하지 않고 나쁜 습관(화냄)을 나타내어 이를 경계하고 있는 글이 나온다.

“아이의 종아리를 때리는 건 내가 악독해서가 아니요, 아이의 나쁜 습관을 금지시키기 위해서라. 만약 악습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고질이 되어 끝내 금지시키기 어려우리...(중략)... 언젠 아이의 지혜가 밝아져, 때가 되면 스스로 허물을 알게 될꼬?(종아리를 때리고 나서, 1560. 5. 6)”

라고 하여 탄식하고 있다. 또한 이제부터는 성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허용되었는데, 양아룩에서는 13세의 숙길이 술을 즐겨 마셔 이에 대한 꾸짖음과 탄식의 시, 그리고 술 마시는 것을 경계한 글(산문)을 찾아볼 수 있다.

“숙길은 아직 비굴함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저녁이 돼서 그 집으로 가서 석 잔을 마시네. 돌아오는데 이미 매우 취해서 말이 거칠고 횡설수설하네(1563. 10. 17.)”

“금년 숙길의 나이 14세, 시골 사람들이 술 권하니 부끄럽없이 마시네.....(중략).. 손자는 지나치게 술

을 탐해 자주 취하네(갑자년(1564년) 정월 초하루)”

양아록에 나타나는 숙길의 술을 마심에 대한 첫 기록은 이미 숙길의 나이 6살이던 1556년 8월의 일기에서 “평소 술과 과일을 좋아하였는데”라고 하거나 9세 때에는 “모름지기 술과 불고기, 전부터 조심해야 하지 않았는가?(1559. 3. 27)”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6세, 9세 경의 아동도 술을 마셨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6·9 세 경에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숙길이가 술을 즐겼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양아록이나 목재일기의 기록에 의하여 볼 때, 성인이 숙길의 음주를 금하였다거나 할아버지인 이문건이 직접적으로 숙길에게 술을 마시지 말도록 타일렀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양아록에 “술 마시는 것을 경계한 글(1564. 1. 2)”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이 글에 의하면, “여러 번 경계하도록 했으나 반성하지 않고”라고 하여 당시 나이가 14세였던 숙길이가 그 당시에 이미 음주를 자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목재일기에서도 숙길의 술을 즐겨서 자주 취하는 모습은 숙길의 나이가 11세이던 1561년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반면, 11세 이후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속이 아파하거나 취했다는 사실에 대한 기록이 증가하고 있다⁶⁾. 즉, 11세 때의 기록에 의하면 숙길의 폭주는 12월에 집중하여 3회에 이르렀으며, 1562년 일기에서는 3회, 1563년의 기록은 8월에 2회, 10월에 3회, 11월 1회, 12월 4회에 이른다. 또한 양아록에서도 13세 이후, 숙길의 술을 많이 마셔 취하게 되거나 어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숙길의 술을 마시는 기록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이 숙길에게 술을 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시기부터는 이미 성인과 함께 술을 즐기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인과 함께 술을 즐기게 되었다는 사실은 성인사회에서 이미 13세의 숙길을 성인사회에서 받아들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동기는 15세까지로 인식하였으나 10여세 이후 성인 사회에서 구성원의 하나로 인식하였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호적제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 호적에는 사람의 연령을 노(老), 장(長), 약(弱), 아(兒)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10세 미만의 아동은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고동환, 1996)고 한다. 이는 물론 유아사망률이 높았던 것이 원인이며, 이때가 되면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것으로 생각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0세가 되면 “아(兒)”라고 하여 이제 사회에 한 사람으로 인정해도 될 만큼 성장하였다고 생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가족관계

양아록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보다는 숙길과 할아버지인 이문건과의 조손관계가 주로 기록되어 있다. 양아록에 나타난 가족관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숙길의 나이가 6세가 되던 해에 숙길은 거처를 할아버지의 방으로 옮긴다. 이제까지 어머니나 할머니와 함께 기거하며 여성들에 의해 돌보아지던 것에서 할아버지의 방으로 옮겨진 후, 할아버지의 손에 의해 양육된다. 6세 이후 할아

6) 1561. 12. 1 숙길의 아침에 옆집 노파의 술을 마셨다. 아침밥을 먹은 후 또 마셨다. 술독으로 인하여 피곤해 하면서 종일 구토하고 밥을 먹지 않았다.
 1561. 12. 2 숙길의 어제의 술기운 때문에 허약하여 글을 배우지 못하였다.
 1561. 12. 30 오후에는 하인의 술을 마시고 또 인손의 술을 마셨다.
 (목재일기 하 3 권)

버지가 주 양육자가 되어 아동의 모든 면을 보살피고 양육한다. 양아록의 기록에 의하면

“잠에서 깨어나면 매번 할아버지를 부르고 내 가까이 오며 두려워 할 줄 모르네

손자가 잠자는 틈에, 일어나 책을 보다가 잠이 깨면 끌어안아 주었지. 손자를 안아 눕히고 그와 더불어 잠자며 밤을 함께 지내고 항상 따로 놔두지 않았네.

6월이 되어 마마로 고통을 당할 때 죽을 먹이는 일, 똥 누이는 일을 일일이 할애비더러 해달라고 졸라대네. 기쁜 마음에 내 스스로 꺼리지 않고 돌봐주니 도리어 즐겁구나(1556. 9)”

라고 하여 할아버지가 담당할 숙길의 양육은 단순히 교육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며 잠잘 때는 물론이고 죽을 먹이거나 똥을 누이는 등의 전체의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의 자녀 양육의 과정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목재일기를 통해서도 증명된다. 목재일기에서 보면, 이문건이 하루에 한번 이상 아이들을 보러 안채에 다녀오는 기록이 많이 나온다⁷⁾. 물론 아내와 아이들을 보러 안채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충분히 알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행동은 한 집안의 가장인 남성의 책임의 하나로 자녀와 아내를 하루에 한 차례 이상 살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가 주 양육자(백혜리, 1997)이기는 하지만 자녀에 대한 책임에서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의 역할과 관심이 지대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3. 아동에 대한 인식

양아록에 나타난 기록을 통해 볼 때, 당시 사

회에서는 아동은 가계 계승을 위한 귀한 존재로 인식하였으며, 아동의 성품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가계 계승자로서의 아동

먼저 아동의 존재에 대해서 아동은 가계 계승을 위해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였다. 양아록의 서술 동기나, 손자에 대한 기원, 손자의 술 마심에 대한 경계의 글 등을 살펴보면 숙길이 가계계승을 위해 중요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손자가 출생하자, 이를 기뻐하며 지은 시에서는 “어리석은 자식이 아들을 얻어 가풍을 잇게 했네” 라고 하여 손자의 출생으로 인해 가풍의 이음을 기뻐하였으며, 손자가 아플 때마다 가문의 운명이 박함을 탄식하고 끊임없이 손자를 통해 가문을 잇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있다.

“다른 아이라 해서 어찌 이질을 앓지 않으랴마는, 우리 가문이 박복해서 그런가 두렵기 때문이라.(1551. 9. 21.)”

“그런 후에 명운이 안정되어 재앙 질병 횡액을 면하리라. 쇠퇴해가는 가문 네가 지탱하여 수 천년까지 이어가게 해야 하리(1555. 12.)”

“쇠퇴해가는 실마리를 다시 떨치게 해주시오?(1565. 4. 2.)”

“실마리가 없기에 감히 마묵(磨墨)이 아이를 얻은 것과 같기를 바랍니다(1548년 손자를 기원하며).”

가문번창 기원문

“이리하여 만아이를 내려 주셨으니, 이것은 천세의 정사를 얻 것이며, 이것이 가통을 계승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만복의 근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중략) 이미 복을 내리고 이미 주셨으니 모름

7) 적게는 하루에 한번, 많게는 하루에 두 세 번씩 “처자를 보러 다녀왔다”는 기록이 있다.

지기 보살피 보시고 모름지기 사랑해 주셔서, 재해가 함부로 침범하는 것을 몰아내고 구제하시어, 능히 성장하게 해주시고, 재해가 함부로 침범하는 것을 몰아내고 구제하시어, 능히 성장하게 해주시고 양육하게 해주시어 수명과 복을 구비해 주셔서 견고하게 응결될 수 있게 해주시면, 즉 영원히 신의 아름다움에 힘입어, 실제로 신령스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잇고 또 잇고 또 잇고 이어서 가문을 끝없이 보존하고, 자자손손 세대를 유지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위의 글에 의하면 이문건은 손자 숙길이 무병 장수하고, 자손을 낳고 이를 통해 가문을 복되게 계승할 것을 기원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사회에서는 “나”는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가문이라는 공동체 내에서의 존재이며 나의 존재는 한 집안의 영원한 존재의 한 고리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부모의 또 다른 탄생이며 부모는 조부모의 또 다른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몸(신체) 역시 개인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유체(遺體)이며 더 나아가서는 조상의 것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소학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내 몸가짐을 조심하는 것을 크게 여긴다. 내 몸이라는 것은 부모의 몸에서 생긴 것으로 나무에 가지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 몸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부모를 상해하는 것이 되고 부모를 상해하면 이것은 근본을 상해하는 것이 되니 근본을 상해하면 가지는 따라서 망할 것이다.’하시니.(주희, 1994)”

라고 한 설명을 명백히 나타낸다. 이에, 양아록에서도

“하늘이 온전하게 육신을 내려주셨는데, 잘 보호하며,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중략)....손자는 모

름지기 이런 뜻을 유념하여 털끝 하나라도 감히 훼손치 마라(1555. 11. 6.)”

라고 하여 몸을 잘 보존 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아록에서도 손자가 할아버지를 잘 따르는 이유에 대해 “한 뿌리 한 가지에서 나왔기 때문이라(1556. 9. 초)”라고 하여 나와 가문을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손자인 숙길이 태어나자 유배지인 성주의 목사와 조카가 축시를 손수 지어보내어 자손이 태어남을 경축하고 있다. 축사에서 성주목사 조희(曹禧)는 “벼슬과 명가의 근원이 끊이지 않고 문장은 정녕 할아버지를 계승하리라는 걸 알았네(1551. 1. 7.)” 라고 하여 가문의 이어짐을 축하하고 있다. 또한 조카인 이엽(李燾) 역시 축사에서 “음덕의 공으로 이미 조선의 가풍을 잇게 되었네(1551. 3. 20.)” 라고 하여 가문의 이어짐을 축하하고 있다. 축시를 통해 볼 때 이들이 축하하고자 한 것은 숙길 개인의 탄생이거나, 이문건이 손자를 보았다는 개인적 사실에 대해서가 아니라 가문이 이어짐을 축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사회에서 개인은 개인으로 보다는 가문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그 자치가 인정됨을 의미한다.

손자를 통해 가계를 계승한다는 것은 가문을 좀더 영화롭게 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숙길을 위한 기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제부터 밥을 씹어 먹을 징조이니, 너의 무한한 복을 축원하노라(1551. 9.)”

“차분히 예의를 지키고, 오래도록 대길하길 바라노라(1551. 11. 15.)”

“어찌 문장을 업으로 삼으려, 어릴 적부터 스스로 여기에 힘쓰려는 것 아니리오? 궁벽하게 된 나

는 신세가 끝나가지만, 이 손자에겐 하늘이 때를 정해주길 바라노라(1551. 12. 28.)”

“은근히 바라노니, 너는 마침내 덕을 이루고, 온윤순강(溫潤純剛)하여 성인(聖人) 과 더불어 짝하라. 모름지기 어진 신하되어 성왕을 보좌하라(1552. 1. 5., 숙길의 들잡이하는 것을 보고 쓴 기록).”

“마음을 수양하여 품성을 완성해서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성을 매우 건강하게 하라. 선성을 잘 보존·수양하고 도의를 왕성하게 해서, 복과 경사를 무궁하게 하라(1555. 11. 6.)”

“네게 바라노니, 아름다운 천품 온전히 하여 장성해서도 그 천품을 어그러뜨리지 마라(1556. 9. 초)”

“인의와 천성을 지키고 상실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공자를 잘 배우는 것이다(1560. 5. 18.)”

“마침내 군자인되어 훌륭하고 덕망 있는 가문을 이루게 되면 생각컨데, 웅당 아름다운 복 누리고 쇠퇴해가는 가통을 살려 면면히 이을 수 있으리라(1556. 8.)”

“그로 인해 마구 나쁜 말을 해서 이것이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작게는 자신을 욕되게 하고, 크게는 가문을 기울게 할 것이다.(1560. 5. 18.)”

“할아버지의 조금증을 탄식하며 내가 진심으로 하나뿐인 손자에게 바라는 건 시종일관 학문을 완성하여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것(1556. 4. 20.)”

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문건은 손자 수봉에게 바라는 기원은 “훌륭하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 “차분히 예의를 지키고”, “문장을 업으로 삼고 덕을 이루고”, “온윤순강하며”, “어진 신하 되고 마음을 수양하여 품성을 완성해서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성이 건강함, 그리고 천성을 잘 보존·수양하고”, “도의를 왕성하게 함” 등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원은 유교적 인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교의 윤리 즉 인욕(人欲)이 억제된 천선의 상태를 의미하며 선을 회복한 인간인 성현(聖賢) 내지는 군자(君子)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당시 사회에서 공부와 인격 수양을 통해 군자가 되면 이는 가문의 영광이며 가문을 좀더 영화롭게 이어주는 일이라고 인식하였음을 생각해 볼 때, 이문건은 손자가 인격을 수양하여 군자가 되기를 기원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왕을 모시는 어진 신하가 됨으로써 가문의 이름을 높이기를, 그리고 이러한 출세를 통해 쇠퇴해가는 가문을 다시 살릴 것을 기원하고 있다.

(2) 타고난 성품을 중시함

양아록에서는 아동의 발달 가능성, 능력에 대해서 선천적인 면과 후천적인 면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후천적인 면보다는 아동의 타고난 성품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먼저 손자의 타고난 성품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는데, 숙길이 태어나자 이문건은 용모를 살펴 “용모가 단아하고 관상이 평범치 않았다(손자가 태어났을 때8))”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숙길의 천품이 “중간수준(1556. 9. 5.)”은 된다하여 너무 기대해서는 안되나 꾸준히 교육시켜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천품이 중간 수준이라 함은 공자에 의하면 “중인(中人)”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논어에서는 “나면서 저절로 이는 사람은 상등(上等)이요,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요, 곤란해져서 배우는 사람은 또 그 다음이요, 곤란해져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 하등이 되느니라(저자미상, 1996)”라고 한 공자의

8) “손자가 태어났을 때”라고 하는 산문에는 기록한 날짜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러나 글의 끝부분에 이수봉의 개명에 관한 글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여기에는 1564년 10월 11일에 “수봉”이란 이름으로 개명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손자가 태어난 1551년에 기록한 글이 아니라 1564년 이후에 쓰여 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설명에 의하면 노력으로 하면 배움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손자가 “비록 끝내 태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해도 천명으로 이 같이 태어났으면 원망하기 어려운지(1559. 3. 13.)”라고 하고, 또한 “만사가 다만 하늘에 달려있는데 따르고 어기는 것을 어찌 꼭 자신이 할 수야 있겠는가?(1563. 10. 17.)”라고 하여 각 개인이 노력은 해야 하나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의 성장 가능성이나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본 것은 아니다. 단지 선천적인 성품을 더욱 강조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만약 악습(惡習)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고질이 되어 끝내 금지시키기 어려워. 악습의 기미는 초창기에 바로 꾸짖고 금해야 하는 법(1560. 5.)”라고 하여 교육이 필요함도 강조하고 있다.

교육방법으로는 억압적이지 않으며 부드럽고,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문진은 자주 본인이 손자를 교육함에 있어서 너그럽고 오래 기다려주지 못하고 성급함을 반성하고 경계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권하고 가르쳐줄 때는 성내며 지도하지 않을 수 없지. 웅당 상세하고 천천히 타일러줘야 할 것이니 조금하계 욕박지른다고 무슨 이득이 있으리?(1556. 9. 5.)”

“항상 훈계할 때는 너그럽게 깨우쳐주고자 하나... 사이에 욕설을 하네. 자주자주 말로 타일러주며 일찍이 매를 대어 괴롭히지 않네 바라노니 내가 성장해가면서 깨달아 누우치고 고쳐서 잘 보완해야 하리라(560. 5. 18.)”

“이 할아버지의 난폭함을 진실로 경계한다”(1566. 4. 20.)

“이끌어주면서 고치게 하려 힘썼으나(1563. 10. 17.)”

또한 아동을 가르침에는 아동을 무조건 사랑과 기다림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함을 겸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먼저 손자가 태어났을 때 조카 이염(李爌)이 보낸 축시와 함께 보낸 편지에서 이염이 “원컨데 너무 귀하게도, 너무 과보호하지도 마시고 다만 평범하게 기르소서(1551. 3. 20)” 한 글에 대해 이 문건은

“이것은 실로 아름다운 뜻이다. 세상에 어린애를 아끼고 보호함에 있어 비단 옷에 구슬로 치장하며 갖가지로 사치하고 화려하게 하여 아이의 복을 훼손하는 것이 매우 많다. 또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조물주가 그것을 시기하여, 혹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1551. 3. 20.)”

고 설명하여 자손을 너무 사랑만 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경계는 손자를 양육하는 가운데 본인의 너그름에 대한 탄식에서도 나타나는데 “손자를 고식적으로 교육해서는 안되며 고집부리는 걸 내버려 주면 고질이 되리라(1563. 10. 17.)”라고 하고, “행여 대단히 상스럽지 못한 일을 그냥 두는 것은 금하는 것만 같지 못하도다(1563. 10. 17.)”라고 하여 손자를 엄격하게 교육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일상생활 중에 일을 저지르면 엄격하게 다루려 한다(1563. 10. 17.)”고 하고 “아이를 가여워하는 고식적인 마음이 사사건건 그렇게 아이의 마음을 반복되게 했도다(1560. 5.)”고 반성을 하면서 엄격한 훈계를 결심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가 사랑과 엄격한 훈계를 함께 실천해야 함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으로 친(親)이라는 글자로 표현된다. 이는 부모가 아동을 자애함은 단순히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가르침을 함께 해야 함을 의미한다. 부모는 며느리를 포함하여 “아들과 며느리가 공경

하지 않거나 효도하지 않더라도 갑자기 미워하거나 싫어해서는 안 된다.”⁹⁾고 하여 자애, 즉, 자녀를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애한

다는 것은 “사리를 어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반드시 가르치고 훈계하는 올바른 도리를 다할 것”¹⁰⁾이라고 하여 가르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양아록의 기록을 통해 조선중기 사대부의 아동, 아동기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고자, 양아록을 분석하여 아동기에 대한 인식,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을 살피고, 아동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였다. 그 결과, 조선 중기에는 아동기를 16세까지로 보았으며, 구체적으로 1-6·7세, 8-10세, 11-16세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 중, 0세에서 6·7세에 이르는 시기에는 아동을 잘 보호하고 양육을 하는 시기로, 6·7세가 되면 가르침이 시작되는 시기로, 10세 이후는 아동이 충분히 성장하여 많은 질병과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시기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1세 이후에는 술을 즐겨 마시며 성인과 함께 어울리는 기록이 자주 나와서 이때부터는 성인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전기에는 아동기를 태아기부터 시작되어 성인식인 관례¹¹⁾를 치르는 시기(남자, 20세¹²⁾, 여자 15세¹³⁾)까지로 보았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류점숙, 1994; 백혜리, 1997)와 차이가 있다. 이는 선행 연구의 경우, 조선 전기에 저술되거나 사용된 중국의 문헌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각

문헌에서는 유교적인 입장에서 성인이 되기 위한 관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연령을 제시한 반면, 양아록에서는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아동기라고 인정되는 시기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아동의 나이가 6·7세 경이 되면 남아의 경우, 이제는 주 양육자가 남성이 되어 거처를 남성들의 주거 공간으로 옮기게 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선행연구(류안진, 1990; 류점숙, 1994; 백혜리, 1997)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할아버지가 숙길의 주 양육자로 아이를 돌보았으며, 아동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당시 사회에서 아동 양육에 대한 남성의 역할과 관심이 지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까지의 선행 연구(백혜리, 1997)에서 자식의 양육은 주로 어머니의 책임이었다고 한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유교적인 이상적 아버지 상에서의 엄부의 이미지와는 달리 아버지도 자상하게, 그리고 세밀히 아동 양육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9) 凡子婦 未敬未孝 不可遽有憎疾(內訓: 母儀章)

10) 慈者非違理之謂也 必也盡教訓之道乎(女四書: 內訓 慈幼章)

11) 관례란 아동이 비로소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기 위해 그 징표로써 성인의 모자인 관건(冠巾)을 쓰는 의식이다. 이 관례를 치르고 나면 성인으로써 취급되며 결혼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인이 갖는 권리나 의무도 부여된다. 류안진(1990, 76-80).

12) 二十而冠 始學禮(小學: 立教 第一)

13) 十有五年而笄(小學: 立教 第一) 계례란 남자의 관례와 비슷한 성인식으로써 비녀를 꽂는 의식을 의미한다. 류안진(1990, 79).

또한 당시 사회에서는 아동은 가계 계승을 위한 귀한 존재로 인식하였으며, 아동의 성품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아동은 가문을 영광되게 하고 번성, 계승할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아동의 성품은 선천적인 면이 후천적인 면보다 더욱 강조되었음을 알게 한다. 아동에게는 유교적인 인간이 될 것이 기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교육이 강조되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점은 조선 중기 사회에서의 아동에 대한 인식이 이제까지 문헌을 통해 이루어진 선행 연구결과(류점숙, 1989; 류안진, 1990; 신양재, 1994b; 신양재, 1995; 백혜리, 1997; 백혜리, 1999a; 백혜리, 1999b; 백혜리, 2000; 정진·백혜리, 2001)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아동은 한 가문의 영속을 위해 존재하는 중요한 미래의 구성원으로 귀하게 생각되었으며, 학문을 익힘으로써, 이상적인 유교적 인간으로 자라나기를, 그리고 학문에의 정진을 통해 입신 양명함으로써 가문의 영광을 이루기를 기원하고 교육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

은 이제까지 아동관이나 아동기, 혹은 아동양육·교육에 관한 선행연구(서봉연, 1984; 김민, 1983; 류점숙, 1984; 염능용, 1984; 김종숙, 1989; 류점숙, 1989; 우영희, 1989; 김경희, 1990; 류안진, 1990; 이정덕·송순, 1993; 강지영, 1994; 류점숙, 1994; 신양재, 1994c; 이길표, 1994; 신양재, 1995; 김영철, 1996; 백혜리, 1997; 백혜리, 1999a; 김순옥, 2000; 백혜리, 2000; 정진·백혜리, 2001)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의 나이가 10세가 넘어서면, 이미 성인과 같이 대접을 받았으며, 성인사회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새로이 알 수 있었는데 이는 15·16세 경에 성인으로 인정받았다고 본, 여러 선행 연구 결과(류안진, 1990)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앞으로 아동관 연구에서 양아록과 같은 실증적인 사료를 이용한 연구가 더욱 많이 수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양아록과 같은 실증적인 사료의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지영(1994) 조선 전기 아동교재의 내용분석: 동몽선습과 격몽요결. 영남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동환(1996). 조선인구가 1천만을 넘어선 시기는, 한국역사연구회(편).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서울: 청년사. 13-24.
- 김경희(1990) 조선시대 아동훈육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1983). 조선시대 아동의 도덕교육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순옥(2000). 사소절을 통한 조선시대 가족 윤리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 38권, 제 3호, 11-24.
- 김영철(1996). 구운몽에 나타난 전통가정교육.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종숙(1989). 조선시대 자녀교육관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대성(1993). **예기**. 이민수(역해). 서울: 혜원출판사.
- 류안진(1990). **한국전통사회유아교육**.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류점숙(1984). 조선시대 아동교육관 연구. **사회과학연구**, 4, 1.
- 류점숙(1987). 사소절에 나타난 아동훈육법 고찰. 대

- 한가정학회지**, 25, 141-152.
- 류점숙(1989). 조선시대 인간발달단계 및 그 교육내용. **아동학회지**, 10, 1, 1-18.
- 류점숙(1994). **전통사 회의 아동교육**. 대구: 중문출판사.
- 백혜리(1997). 조선시대 성리학, 실학, 동학의 아동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백혜리(1999a). 현대 부모-자녀 관계와 현대 부모-자녀 관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 19권 제 2호, 75-89.
- 백혜리(1999b). 백동자도를 통해 본 조선 후기의 아동인식(1). **유아교육연구**, 19, 2, 59-76.
- 백혜리(2000). 백동자도를 통해 본 조선후기 아동인식(2). **아동학회지**, 20권 2호, 67-81.
- 서봉연(1984). 전통적 생활 세계와 아동생활. **전통적 생활양식의 연구(중)**, 서울: 한국정 신문화연구원, 29-141.
- 신양재(1994 c). 조선시대 풍속지에 나타난 아동양육 고찰: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京都雜志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291-228.
- 신양재(1995). 조선시대 교훈서에 나타난 아동연령기대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6, 1, 183-196.
- 염능용(1984). 조선시대 여성교육에 대한 일고찰: 여성교훈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 원 석사학위 청구
- 우영희(1989). 조선시대 교훈서를 통해본 자녀양육: 동몽선습, 격몽요결, 사소절, 고암가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미간행.
- 이계학(1995). 한국인의 전통 가정교육사상의 현대적 조명-효부 엄부자모를 중심으로. 세계화를 위한 '효' 가치관 정립과 자녀양육 방향 모색. 1995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44.
- 이길표(1994). 조선조 규범류에 나타난 가정규범교육의 내용과 특징. **대한가정학회지**, 제 32권 제 4호, 1-14.
- 이문건(1997). **양아록: 16세기 한 사대부의 체험적 육아일기**, 이상주 (역주). 서울: 태학사.
- 이문건(1998). **목재일기(상, 하)**. 영인본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이복규(1999). **목재 일기에 나타난 조선전기의 민속**. 서울: 민속원.
- 이정덕·송순(1993). 소학에 나타난 동몽기 예절교육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1권, 제 4호, 157-168.
- 저자미상(1996). **논어**. 김석원(역해), 서울: 해원출판사.
- 정진·백혜리(2001). 조선후기 풍속화를 통해 본 아동인식. **아동학회지**.
- 주희(1994). **소학**. 박병대(역해), 서울: 일신서적.